

마을이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

박정아
구산동도서관마을
문화정책팀장

꿈나무어린이 도서관에서부터 시작된 마을공동체

2004년 대조동 주민자치센터 옆의 파출소 자리가 비었다. 당시 주민센터 3층 어린이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엄마들의 마음이 바빠졌다. 서가 관리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든 것을 엄마들 자원봉사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목마른 자가 판 우물,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그렇게 문을 열었다.

은평구에 하나뿐인 어린이도서관은 ‘인기 폭발’이었다. 2층 규모에 번듯하면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위치라 더 좋았다.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아이들을 따라 엄마들도 모였다. 도서관 봉사도 좋았지만 함께 모여 책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컸다. 대조동뿐 아니라 은평구 모든 동네마다 이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06년 구산동에 동사무소 공간이 하나 빌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체 없이 피켓과 책상을 들고 구산역 사거리로 나섰다. 구산동에 도서관을 지어 주세요! 11일 만에 2008명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은평구는 언제쯤이나 예산이 확보될지 알 수 없었다.

은평도서관 마을협동조합까지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은 갈현동에 동네 사랑방 같은 카페를 하나 냈다. 오늘까지도 활발히 운영 중인 카페 ‘마을엔’은 약속 없이 들러도 늘 누군가를 만나고 동네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각종 활동과 교육, 수많은 모임들의 산실이 되고 있다.

2012년 구청장의 한 비서관이 카페를 찾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신청해 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2008년도에 구산동 주택가 한가운데 확보한 8채의 주택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비가 없어 그간 놀리고 있던 이 공간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겠냐고 물었다. 두 말도 필요 없었다. 도.서.관!

‘마을엔’ 도서관 사람들은 그날부터 며칠 밤을 새워 발표자료와 제안서를 만들었다.

은평구의 대표도서관은 산꼭대기에 있다. 구민들에게 등산과 독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선사하려는 구청의 야심찬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구산동도서관 내부 모습

예산이 허락한 공간, 산꼭대기. 이제 우리에게는 옆집처럼 편안히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단지 동네의 필요성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그래, 도서관은 기록의 집합소이기도 하잖아? 한 골목을 그대로 살린다면 그 자체가 동네의 역사, 마을의 기록이 되는 것이야!’ 예산 절감이라는 필요와도 맞아떨어졌다. 빌라 셋, 주택 다섯을 리모델링한다는 콘셉트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기적처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때의 19억 원은 도서관 건립의 씨앗자금이 되었다. 이후 청소년힐링캠프와 만화도서관 조성으로 예산이 더해져 받은 참여예산이 모두 35억 원이었다. 이제 도서관을 짓는 일만 남았다.

꿈에 그리던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하니 카페 ‘마을엔’ 도서관 사람들은 마음이 바빠졌다. 다른 구립 도서관들처럼 관이 지어 내미는 것을 손님처럼 앉아서 받는 것은 마을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도서관이 지어지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지역의 힘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은평구는 이전부터 다양한 활동의 시민단체들이 조용히, 그러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10년이 지나자 풀뿌리 단체들은 제각기 훌륭한 조직으로 성장해 있었다. 도서관 활동의 중심, 마을엔도서관, 건강한 먹거리 운동조직, 은평 두레생활협동조합, 책문화활동을 펼치는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은평지회, 책과 함께하는 전문 공연집단 문예콘서트, 생태환경 운동조직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에코상상사업단이 모여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하 은도협, 2016년 10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을 결성하였다.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는 중심이 만들어진 것이다.

도서관 만드는 과정을 축제의 장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도서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구청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귀찮은 민원인이 아니라 관과 힘을 합쳐 나가는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다. 은도협에서는 주민 중 한 명을 구청 마을공동체팀으로 파견하였다. 2년간 계약직 공무원이 되어 구청과 주민들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 온전히 구산동도서관마을 만들기에만 집중하였다. 설계와 건축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은도협이 주최하고 구청이 지원하는 각종 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폐가에서 축제·벼룩시장·주민공연 등을 열고, 철거 당시 떼어낸 문짝으로 도서관에 들어갈 책상을 만들었다. 2년간 주민들과 탐방을 다닌 도서관이 10군데가 넘었다.

도서관 부지는 2008년 매입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다. 2013년, 이 골목에서 '도서관을 상상하자'라는 축제를 열었다. 반지하 주차장에 북콘서트 무대를 꾸며 노래와 연주를 하였고 아이들은 전통놀이를 하며 뛰어놀았다. 인근 주민들은 궁금해서 기웃대며 언제 도서관이 들어서냐고 묻곤 하였다. 이런 축제가 두 번 더 이어졌다. 매번 조금씩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준비하는 인원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서관을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할까. 청소년 벼룩시장을 열고 구산동축제와 은평누리축제 등 구산동도서관마을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찾아갔다.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은도협 주최로 도서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부모·주민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도서관 마을학교를 열었다. 한 차시마다 7주간 강의를 하였다. 어린이책의 이해, 청소년, 책으로 만나다, 예술도서관을 상상하다, 여성의 눈으로 마을보기 등 도서관과 마을, 도서관과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었다. 도서관마을학교가 끝났을 때 이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은 이미 훌륭한 도서관활동가로 우뚝 서 있었다. 이들은 각기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찾아 자원활동을 펼쳐 나갔다.

주민의 성장

도서관은 아직 건설 중이었지만 앞으로 도서관에서 활동할 주민동아리를 먼저 만들었다. 구청이 예산을 책정하여 '구산동도서관마을 주민동아리 지원사업'을 펼쳤다. 책읽는 동아리, 그림자극 동아리, 인근 구산초등학교 명예사서들로 만들어진 학부모 동아리, 만화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등 모두 7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구청은 무슨 지원을 한 걸까? 구청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모임을 갖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조금 지원하였다. 함께 돌려 읽을 책을 사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보드게임을 구입하고, 회의가 끝나면 함께 밥을 먹는 그 모든 일을 구청의 지원으로 추진하였다(이때 구입한 책과 보드게임들은 도서관 개관 때 모두 기증되었다).

자기들이 좋아서 만나는데 구청에서 돈을 댔다고? 이것이 마을공동체이다. ‘밥정’을 쌓는 일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 마을공동체의 일원들은 함께 만나 도서관을 논의하고 의견을 내고 구산동도서관마을이 붙은 모든 동네 행사에 나서 힘을 보탰다. 이들은 훗날 도서관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동아리를 발전시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도 하였다. ‘밥정’이 이루어낸 결과물이었다.

‘책에 관한 토크, 먹으며 하는 토크’라는 뜻의 ‘책톡먹톡’이라는 주민 공연을 매월 1회씩 총 5차례 열었다. 매월 만화, 가을, 편지 등의 주제를 정해 플래카드를 걸고 참여할 주민을 모집하였다. 어르신들 하모니카팀, 유치원 어린이들의 노래, 서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초등학교생, 편지를 들고와 낭송하는 남성, 색소폰을 연주하는 동네 카페 사장님…. 관객들은 돌아가며 시낭송을 하고 각 주민동아리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한 코너를 꾸몄다. 그림자극을 공연하고, 그림책을 읽어 주고, 보드게임을 진행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목공체험 부스를 열어 독서대를 만들기도 하였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떡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도서관의 청사진을 놓고 기대에 부풀었다. 우리 도서관이 들어서기만 하면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구산동은 인근에 초·중·고 11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도서관을 아지트로 청소년들이 생기발랄한 활동을 펼쳐 나가는 일은 많은 도서관 활동가들의 꿈이었다. 도서관과 가장 근 거리에 있는 5곳의 중·고등학교에 설문지를 돌렸다.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 도서, 공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설문지 마지막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활동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에게 연락처를 남기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2013년 12월, 43명의 학생이 구청 대회의실에 모였다. 이후 몇 번의 워크숍을 거쳐 11명의 아이들이 남았다.

아이들은 도서관 공사장 가림막에 벽화를 그리고 이곳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표시를 하였다. ‘책톡먹톡’이나 한겨울 추위를 뚫고 진행된 벼룩시장 등 모든 도서관 홍보행사에서 진행요원을 자처하였다. ‘도서관이 들어서면 이걸 할 거예요. 저렇게 꾸밀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가 빨리 완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시작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현재 3기를 맞이하였다. 중등 14명, 고등 14명 등 모두 28명의 청소년운영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구산동도서관마을 개관을 기념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그린 걸개그림



청소년 자료실의 공간 운영에 의견을 내고, 도서관의 벽을 꾸민다.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성실하게 움직인다. 가장 놀라운 일은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2015년 6월 드디어 도서관이 완공되었다. 지방공사에 철빔으로 보강공사를 더하고 건물 4채를 이어 짓던 중 주택 한 채가 무너져 원래의 모습 그대로 다시 짓기도 하였다. 리모델링은 생각보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은평구의 구립 도서관은 이로써 모두 6개관이 되었다. 주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은평도서관마을협동조합이 협동조합으로는 최초로 도서관을 위탁받게 되었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진 도서관, 마을공동체의 산실,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마을이 만든 도서관은 어떻게 다를까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여타의 공공도서관과 비슷하다. 책을 빌려주고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조금 다른 면도 있다.

현재 구산동도서관마을은 종합, 미디어, 어린이, 청소년, 만화, 마을 등 모두 6개의 자료실이 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 자료실 종류가 많은 편이다. 보통 종합자료실이라 하면 서가가 뿔뿔히 큰 공간이지만 주택을 리모델링한 터라 그렇게 큰 공간이 없다. 결국 서가는 건물과 건물을 이은 복도에 놓이게 되었다. 복도가 종합자료실인 셈이다.

그 외에 우리 도서관의 특징이라면 열람실이 없다는 것이다. 절대 정숙을 요하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은 없다. 리모델링하며 50개가 넘는 방들의 벽을 털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오밀조밀한 방 크기의 공간들이 많아졌다. 거기에 책도 있고 책상과 의자도 있다.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책을 읽는 분들이 많다. 어찌 보면 도서관 본래의 목적에 보다 더 가까이 있는 셈이다.

이런 공간적 특성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서관이 미로 같다고 하신다. 미로 같은 공간 때문에 다른 도서관보다 운영 인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 사서와 일반 직원이 모두 25명이다. 이 중 절반은 건립 과정에서 활동하였던 은도사협 조합원들, 주민동아리원들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이다. ‘도서관에서 일하기’라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을자료실에는 지역의 온갖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다. 구청에서 발간된 모든 책자, 마을공동체 단체들의 자료, 은평구의 향토 자료, 동네 어르신이 고이 간직해 온 사진 자료 등 가히 은평구 최대 마을자료 집합소라 할 수 있다. 동네 홍보 게시판이 따로 있어 지역에서 어떤 행사와 강좌가 펼쳐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2·3·4층에 마련된 만화자료실에는 다양한 만화가 가득하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만화 활동을 해온 전문사서가 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양질의 만화를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만화가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도움받은 각종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된다. 2층 만화자료실에는 만화가의 직접 지도로 이루어진 수강생들의 작품, 세상에 단 한 권뿐인 만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강좌는 올해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청소년자료실에서는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근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 등 수업의 한 종류로 도서관을 방문해 이용법을 배우고 공간을 꾸미고 책을 읽고 토론한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명랑운동회를 열어 초등 동생들과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7년 올해는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대주제 아래 매월 여성, 복지, 주거, 역사 등 작은 주제를 정해 문화행사와 도서들이 전시되고 있다. 9월의 주제는 노동이다. 성공회대 하종강 교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고 매주 노동 관련 영화가 상영된다. 최재천 교수, 박시백 화백, 은유 작가, 광노현 전 교육감 등 작가와의 대화나 명사 초청 강연들은 이미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의 교육 프로그램>



겨울방학 독서교실, 별과 우주 만화



초등 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청소년 숙제 도우미



겨울방학 독서교실, 만화자료실



여성을 주제로 한 이민경 작가 강연



복지를 주제로 한 박주민 의원 강연



나만의 책 만들기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참가 어린이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 모습



마을자료실 이용자



만화자료실 이용자



도서관마을장터



은평중 1학년 학교연계수업



주민라디오 활동

녹음시설을 갖춘 스튜디오가 있는 도서관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구산동 도서관마을의 자랑 중 하나인 스튜디오에서는 중·고등 학생들이 라디오를 녹음하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폐관 10분 전에 방송을 한다. 마을 주민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인터뷰하는 때도 있다. 최근에는 10대부터 60대까지 주민들이 모여 만든 주민라디오팀도 만들어졌다. 그 어렵다는 디지털 녹음시설의 기술을 익혀 가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라디오 방송에 흠뻑 빠져 있다.

여름방학의 끝에 ‘환상 속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밤 12시까지 진행되었는데 방학숙제도우미(중·고등 학생들이 개학을 앞둔 초등생들의 숙제 지도), 하루 5편의 영화 상영, 야외마당에서 김밥 말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많은 이용자들이 참가하였다. 가족이 모두 도서관에 모여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함께 김밥을 말아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하였다.

요즘 도서관 주차장에서는 매월 한 차례씩 도서관마을장터가 열린다. 지역의 도시농부들과 함께 텃밭에서 가꾼 농산물 장터를 열어 파전도 부치고 책놀이터도 펼친다. 동네에 이런 남다른 도서관이 하나쯤 있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반갑게 다가가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도서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동네에 도서관이 하나 있다는 것, 그것은 좋은 책을 만나고, 이웃을 알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오래도록 살고 싶어진다는 것이다.